



2004가 기억하는 작가와 책 세상

이옥수

**녹록찮은 요즘 아이들 삶,
글쓰며 함께 웃고 울어주겠습니다**

녹록찮은 삶! 아이들이라고 웃을 일만 있을까. 중풍에 걸린 아빠의 낯선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는 은수, 치매 걸린 할머니를 이해해야 하는 새샘이, 좀처럼 희망이 잡히지 않는 현실에서 울부짖는 윤제와 비닐하우스촌 친구들. 지난해 《아빠, 업어 줘》를 내놓은 이옥수 씨는 올해도 녹록찮은 삶과 마주한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고 두 권의 책을 펴냈다.

《똥 싼 할머니》와 《푸른 사다리》. 단편집도 아닌 장편집 두 권을 내놓았으니 풍년이라 불려도 좋을 한해다. 거기다 《푸른 사다리》로 제2회 사계절문학상을 수상했으니 이옥수 씨의 2004년은 감사함과 기쁨이 교차하는 해로 정리된다.

“1992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초창기부터 호흡이 긴 장편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고학년 장편동화를 쓰게 됐고, 쓰다보니 올해는 장편동화에서 청소년 소설로 확장된 글쓰기를 할 수 있었던 한해였던 것 같네요.”

책상머리에 앉아 줄창 글만 쓰는 게 작가는 아닐 터. “열달 동안 글을 정성들여 착한 후 산고를 겪는다”고 말하는 이 씨의 창작과정 중엔 현장취재가 빠지지 않았다. 특히 서울구치소 주변 비닐하우스촌을 무대로 한 《푸른 사다리》는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인 만큼 현장감 묻어나는 목소리들이 필요한 작품이었다. 그런 까닭에 이 씨의 2004년엔 소년분류심사원, 비닐하우스촌 사람들의 삶을 부지런히 훑아보고 귀를 열어뒀던 순간들도 주요 장면으로 남는다.

이씨는 “얼마전 실제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를 얻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며 기쁜 마음을 내비쳤다. 물론 아쉬운 장면들도 있다.

《똥 싼 할머니》를 쓰면서는 치매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안들을 찾아 봤으나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겨둔 채 고민만 하고 있다는 고백이다.

한편 사람과 세상을 좋아하는 천성을 가져 여행을 즐긴다는 이씨는 올해 아프리카를 다녀왔다. 그동안 유럽, 인도 등 다양한 세계를 다녀봤는데 그때마다 건져오는 자료들은 언젠가 좋은 이야기로 탄생시킬 계획이다.

“작가로서 치열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글 때문에 가족들을 방해하는 게 싫어서 규칙적으로 글쓰는 시간을 갖는 편입니다. 엄마로서의 ‘업무’를 다 본 후엔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책을 함께 읽고 사람들 이야기에 충분히 귀를 열어두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씨는 현재 새로운 작품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작품의 배경은 강원도 사북. 올 초에 부지런히 사북을 드나들면서 탄광촌 자료들을 수집했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집필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사실 사북 사람들 사연 앞에서 울고, 웃었던 시간이 꽤 길었지만, 이젠 한발짝 물러나 객관화된 시선으로 탄광촌 사람들의 삶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씨의 고백이다.

“어른들 소설 중엔 사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지만 아이들 책에는 농촌, 어촌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탄광촌의 사정을 보여주는 책이 없더군요. 아이들에게도 분명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 현실과 마주칠 아이들 곁에 머물면서 글로써 그들의 삶을 함께 살아주고 싶습니다.” **◆◆**

취재 | 김청연기자·사진 | 박신우기자

이 옥 수가 읽고 권 하는 책

홍 당 무 (비룡소 클래식)

질 르나르 지음
펠릭스 발로통 그림
심지원 옮김
비룡소
270쪽
값 10,000원



홍당무뿐만이 아니라 《하이디》, 《보물섬》, 《꿀벌마야의 모험》 등 비룡소 클래식은 올해 정말 반갑게 읽은 책이다. 어린 날 문고판으로 읽었던 것을 이제 제대로 된 완역판으로 읽으니 정말 재미있었다. 그 중에서도 붉은 머리카락과 주근깨 투성이의 홍당무. 이 결점투성이 아이는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책을 읽으면서 아이의 모습과 아이를 둘러싼 배경을 상상해 보는 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였다.

고 민 의 방

재클린 월슨 지음
닉 사렛 그림
지혜연 옮김
시공주니어
174쪽
값 6,500원



《고민의 방》은 스피드 선생님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다. 아이들은 이 사이트에 익명으로 자기만의 고민을 쓰고 선생님, 친구들과 고민을 의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새로운 소통공간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책.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책이다.

열 여섯 의 섬

한창훈 지음
사계절
184쪽
값 7,000원



섬 소녀 서이. 자라난 배경은 다르지만 늘 넓은 세상을 꿈꾸며 온갖 공상의 나라를 펼치는 모습이 소녀적

내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정이 갔다. 문득 고개를 둘러보면 서이가 내 등 뒤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애착이 가는 작품이다.

단 추 전 쟁

루이 페르고 지음
클로드 라푸앵트 그림
정혜용 옮김
낮은산
374쪽
값 10,000원



작가 자신의 유년시절을 되살려 썼다는 이 책에는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욕설과 투박한 시골사람들의 무지막지한 자식사랑법 등 줄곧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사연들이 담겨 있다. 진술, 솔직, 담백한 글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책.

똥 보, 내 인생

미카엘 올리비에 지음
조현실 옮김
송영미 그림
바람의아이들
172쪽
값 8,000원



내 고민이 이 책의 주인공 똥자멍의 고민이다. 남들은 '똥보' 들의 되풀이되는 좌절감을 웃어넘길 수 있겠지만 당하고 사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삶과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의 고통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똥자멍 파이팅!

연 금 술 사

파울로 코엘료 지음
최정수 옮김
문학동네
278쪽
값 8,000원



평범한 청년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순간들이 참된 자아를 찾아가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연금술의 과정임을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정제된 순금을 얻게 되리라.

인 디 고 아이 들

리 캐롤, 안토버 지음
유은영 옮김
산티
382쪽
값 9,500원



“새로운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부제를 단 책. 자신 내면에 숨겨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적응아에 대한 새로운 입장과 대안을 내놓는 책. 결코 문제아라고 부를 수 없는 문제아들의 이야기로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다.